

● 맥박이 빨라지는 때

정상인 맥이 발작적으로 빨라지는 부정맥을 ‘발작성 빈박증(頻拍症)’이라고 한다.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심장이 뛰고 숨이 차며 때로는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심장병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 무서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심근경색의 발작과 합병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

● 맥박이 늦어지는 때

심장에 장애가 있어 맥이 늦어지는 것-서맥(徐脈)이라고 한다-으로 동방(洞房)블록과 방실(房室)블록이 있다.

동방블록은 동결절(洞結節)-심장의 리듬을 만드는 장소. 동결절에 생긴 흥분은 심방으로부터 심실로 전해진다.-의 활동이 좋지 않은 병이다.

방실블록은 심방이 정상적으로 맥을 박동시키고 있어도 그 자극이 심실에 전달되지 않는 질환으로, 심실이 반박에 맥을 박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맥박이 늦어지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에 혈액이 보내지지 않게 되어 의식을 잃거나 급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 맥박이 불규칙할 때

기외수축(期外收縮)과 심방세동(心房細動) 2가지가 있다.

①기외수축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다. 이것은 심장이 예정보다 빨리 수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맥으로, 과로·지나친 흡연·수면 부족 시 등에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기외수축을 일으켰을 때에는 심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②심방세동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으로, 이때는 혈액이 굳어지기 쉽고 혈전증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실조(失調)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발작적인 두근거림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의 위해가 느껴지면 의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심방세동인 사람은 빨리 걷는다든가 언덕길을 뛰어오른다든가 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 계속)